

출산가정 지원 대폭 확대

임실군, 4월 13일 시행... 첫째 100만원·둘째 300만원·셋째 500만원 등

임실군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가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미혼모와 입양가정 및 신생아 출생 시 부모의 관내 거주 일년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정책을 4월 13일자로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미혼모와 입양가정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에 지원했던 출산장려금 지원규모도 늘어난다.

그동안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을 지원해 왔

다.

그러나 조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일년 전부터 계속하여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할지역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일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미혼모와, 신생아 입양가정, 재혼가정, 결혼 이주민 가정 등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군은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임신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저소득층 가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지원 등 임신부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확대 지원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임실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참두릅' 전국적 브랜드 구축

대형마트 납품

순창 참두릅이 최근 전국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빅마켓, 농협하나로 유통센터 등 대형마트에 납품을 시작하면서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이 이번에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양은 70톤 정도로 약 15억원 분량이다. 특히 순창군은 지난해 대형마트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통해 약 300여톤의 참두릅이 팔리면서 40억 원 가량 소득을 올리고 순창 두릅의 전국적 브랜드를 구축했다.

이에 지난 13일에는 창동 하나로 유통센터에서는 순창군 우수농산물 소비자 홍보 행사를 통해 두릅 판촉 행사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구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한재현 농협 순창군지부장, 유광희 순창조공법인 대표, 이두용 구립농협장, 양준섭 동계농협장, 설득환 서순창농협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순창 두릅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군은 지난해 350ha였던 두릅 재배면적이 400ha로 늘고 참두릅의 브랜드 파워가 상승해 올리는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락동 시장에서 kg 당 1만7,000원에서 2만3,000원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 올



순창 참두릅이 최근 전국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빅마켓, 농협하나로 유통센터 등 대형마트에 납품을 시작하면서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 참두릅이 지역 농민들의 소득작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 참두릅이 전국적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원인은 품질 면에서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교차가 크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 사포닌, 단백질,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다.

특히 순창참두릅은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관내 구립, 동계, 서순창농협이 '공선출하회'를 조직해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친다.

또 하나의 강점은 전략적 마케팅이다. 참두릅의 특성상 수확시기와 가격여측이 어렵고 장기 저장이 어렵다. 특히 원순과 결순의 출하 간

에 공백기가 있어 대형마트에 출하가 힘든 실정이었지만 순창군조합 공동조합법인과 농협은 농민들과 협상을 마치고 거래처 확보에 나서 성과를 거뒀다. 효과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군측은 GAP 인증 등 순창 참두릅 명품화 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67%를 차지하는 산지소득을 도모하기 위해 50ha에 1억3천여만원의 소득 조립을 지원한 점도 눈에 띈다. 두릅은 28ha에 8천만 원을 139농가에 지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오터치 오감발달 놀이교육'

순창군, 5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보건의료원 대회의실서

순창군이 아이와 엄마가 함께 오감발달 놀이교육을 통해 정서적 교감을 진행하는 '오터치 오감발달 놀이교육'을 진행해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순창만들기에 나선다.

이번 놀이교육은 놀이를 통해 아이의 성장발달을 돕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고 아이와 엄마의 정서적 유대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13일부터 시작했으며 5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보건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

5~9개월, 10~16개월의 유아와 보호자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시에 반별로 18가정씩 5주간 운영하며 참여자는 선착순 신청을 받았다.

5~9개월반은 13일 첫 시간에는 '소중한 내뽀'이라는 주제로 신체 인지 마사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일 2차시에는 '토끼야 뛰

니'라는 주제 아래 점프, 생활습관 알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3차시에는 짐볼 가지고 놀기, 4차시에는 종이놀이가 진행된다. 마지막 5차시에는 크다 작다 인지 프로그램과 터널놀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10~16개월 반은 13일 첫 시간에는 꽃구경으로 개나리와 진달래에 대해 배웠다. 2차시에는 에벌 레알기 3차시에는 나비날리기 나비 번신, 4차시에는 케익 만들어 축하하기, 5차시에는 개구리점프, 구연동화 듣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시작하는 오터치 오감발달 놀이교육이 임신부와 출산부, 영유아 보호자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이키우기 좋은 순창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서민층 에너지복지 '온함'

순창군이 서민층의 에너지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 군민들의 안전은 물론 효율화로 인한 경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이달부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가스시설 안전장치(타이머 콕) 보급사업, 히터 사업을 착수해 화재 예방 및 주거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관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 335가구를 대상으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고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은 가스밸브에 타이머를 설치해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잠가주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50가구에 보급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수두 예방 당부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16일 봄철,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유행 시기를 맞아 어린이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특히 취약전·후 어린이들의 단체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4~6월과 10월~이듬해 1월에 환자 발생 건수가 증가한다.

최근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이 0세~9세 이하 어린이에서 발생이 높고, 당분간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산 춘향씨감자 재배관리 총력

남원시에서는 춘향씨감자 재배단지를 육성하여 감자재배 농업인에게 종자를 공급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남원산 춘향씨감자는 강원도 보급종 증식단계와 동일하게 4단계 증식과정을 거쳐서 생산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기타병해충 감염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종자공급 전 종자검사까지 실시하여 비로소 '춘향씨감자'라는 이름으로 감자재배 농업인에게 공급되고 있다.

춘향씨감자는 6월 하순경에 수확하기 때문에 8월 하순경에 수확하는 강원도산 씨감자와 비교했을 때 9월~10월 사이에 정식하는 감자 재배작형에 알맞은 휴면기간을 확보하여 농업인들에게 선호도가 매우 높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의회 임시회 폐회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16일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실과원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7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전남근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 및 2018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